



머리글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콜로세움에 앉아서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검투사 경기가 열리고 있는 콜로세움입니다. 사람들은 마구 웃으며 검투사 경기를 즐깁니다. 누가 누구를 죽이는지, 그 피 튀기는 싸움을 웃으면서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칼을 놓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전투를 할 수 없습니다. 군중은 야유를 보냅니다. 소리칩니다. 죽여라, 죽여버려라, 쓸모없는 놈이라고 외칩니다. 황제는 군중들의 야유 소리가 커지고, 모든 군중의 외침에 응하듯, 엄지손가락을 바닥을 향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처형합니다.

사형제가 범죄 억제력도 없고, 오판할 수 있는 불의한 제도라는 것이 법학자에 의해 드러났음에도, ‘국민 법감정’을 들어 쉽게 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이므로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냐고 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이기에, 국민이 주인이기에, 국가가 주인인 국민의 생명을 뺏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생명을 보호하는 것에 있어서 어찌 다수결로 결정을 합니까. 국가가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제도를 존치해 놓은 상태는 로마 콜로세움 경기장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군중은 그렇게 계속 야유하고 소리칩니다. 죽여버려라, 밟아라, 없애라. 단지 사형제만이 아닙니다. 인터넷상에서도 오가는 거친 댓글들에서부터 내편 내편 갈라서 서로를 짓밟아야 정의가 실현되듯 핏대를 높이며 싸웁니다. 어찌면 흉악범죄는 범죄자 한 명의 잘못도 있겠지만, 그 콜로세움의 분위기 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서로 짓밟아야 한다는 우리네 문화가 키워온 것은 없는가 반성해봅니다. 콜로세움의 그 치열한 싸움의 경기장, 죽음의 문화에서 벗어나, “모든 폭력의 원인은 불평등이다”라는 교황님 말씀대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조금씩 고쳐나간다면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상생의 문화로 변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모두 함께 손잡고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두어 두는 것으로 ‘내 역할 다했어’가 아니라, 갇힌 이가 나와서 정말 어울려 잘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꿈꿔봅니다.

올해는 김수환 추기경님 10주기입니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꿈꿔오신 분, 서로 밥이 되어주라 하시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시고, 다가가시고, 스스로 밥이 되어주신 추기경님을 떠올려봅니다. 우리 사회교정사목위원회를 추진하시고, 지지해주시고, 자주 사형수들을 만나 따뜻한게 손잡아주시며 웃어주신 분, 그립습니다.

우리 차례입니다. 콜로세움의 군중들이 성난 목소리를 높일 때, 아니다, 옳지 않다, 함께 잘살아 보자며 성난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어주고 안아주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 후원회원님들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죽음의 콜로세움에 피어난 꽃과 같은 우리 후원회원님들의 향기가 더욱 퍼져서, 불평등이 사라져 폭력이 없는 세상이 되어 사형수가 없는 사회, 출소자라고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꿈꾸며 올해를 시작합니다.



제20회 2018년 교정시설 자원봉사자 교육 파견 미사

11월 30일(금) 제20회 2018년 교정시설 자원봉사자 교육 파견 미사가 교정사목센터에서 현대일 루도비코 위원장 신부의 집전으로 봉헌되었습니다. 현대일 신부는 “우리의 교육을 어부 교육에 비유하자면, 어부의 마음가짐과 물고기는 어떤 습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알아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낚싯대를 던지고 가만히 기다려야 할 때이다.”라며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입을 벌려 미끼를 물릴 수는 없다.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겠지만 내어 맡김도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교정시설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수용자들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봉사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12월 3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가 가톨릭회관 3층에서 살레시오회 강봉묵 마티아 신부의 주례로 봉헌되었습니다. 강봉묵 신부는 강론을 통하여 “구원은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열려있다.”라며 “따뜻한 빛이 달고 있지 않은 곳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두고 많은 이들을 초대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미사에는 12월 축일을 맞이한 이상원 사도요한 부위원장 신부를 위해 대표봉사자들의 축가와 꽃다발 증정식도 진행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더욱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각 교정시설 세례식

각 교정시설에서 세례식과 방학식이 있었습니다. 서울남부교도소 훈련원 7명을 시작으로 서울구치소 8명, 서울남부구치소 여사 2명, 남부구치소 남사 5명, 남부교도소 공장 5명, 동부구치소 남사 6명, 고봉중고등학교 5명의 세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봉사자가 함께 자리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남을 축하해주었습니다.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느끼고, 베풀 수 있는 자녀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로이 노래심부름을 하며

박은화 루시아_ 서울구치소 남사 봉사자

구치소 안 강당에서는 봉사자들이 수용자들을 위한 미사 준비와 기도에 여념이 없다. 기타와 마이크를 조율하며 심호흡하고 있을 때, 파란 옷 계열의 형제님들이 열을 지어 들어온다. 교도관이 정해주는 자리에 딱딱 정좌하고 정면만 바라본다. 다섯 해 전 초등학교 교단에서 정년퇴직으로 내려와 처음 이곳에 음악 봉사하러 왔을 때는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야 할지 아득했었다. 왜 그리도 무섭고 험하다고 느꼈을까? 입술 안쪽에 허연 테가 겹겹이 끼는 공포 속에서 극도로 긴장을 했었다. 그날처럼 지금도 여전히 이백 명 가까운 수용자들이 얼굴에 웃음이 없다. 어깨가 축 늘어지고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죄를 지어 이곳에 당연지사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연일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대형 범죄와 불법, 이 세상 잘못과 허위들이 난무한 속에서 혼자 뒤집어 쓴 채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뒤편 한쪽에서 신부님께 참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동안, 나는 형제님들에게 미사 때에 부를 성가를 앞에 나와 선창하며 노래를 이끌어간다. 미사가 끝나고 꿈과 희망, 가족과 사랑, 고향과 추억의 노래 다발들을 엮어주면, 얼굴마다 함박꽃웃음이 피어난다. 피곤과 갈등, 참담함과 곤혹 등으로 웅어리져 있는 그들에게 성가와 다양한 가요들을 다 함께 부르도록 열정적으로 기타 치며 진행해주는 나는 누구인가? 그들과 호흡이 척척 맞을 때 느끼는 희열감은 죽고 못 살 만큼 사랑할 때의 감정과 맞먹는다. 이것이 순수한 열정, 사랑 아닌가? 보잘것없는 내가 지금 누구보다 주님 사랑이 절실한 그들에게 그저 작은 기쁨 하나 드릴 수 있을 뿐이다. 그들이 나를 보는 시각과 내가 그들을 보는 시각이 실로 많이 변한 지금, 이제 서로를 향하는 진심의 주파수가 맞는 것 같다. 미사를 함께 하는 내내 기도가 빗줄기처럼 이어진다. 영성체 후 조용한 기타반주에 뉘우침을 주제로 하는 나의 간절한 특송이 흐를 때면 그들과 분명 하나임을 느낀다. 주님께 그들과 내가 그동안의 잘못을 회개하고 새 마음으로 거듭나기를, 그들의 진정 아프고 원통한 마음들이 빗물처럼 씻겨 내려가기를 간청한다.

이곳에 오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진실해져 가는 나를 발견한다. 더 이상 나는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와서 재능기부라는 명목으로 설쳐대는 특별히 선택된 자가 아니다. 교단 사십여 년으로 축적된 나의 모든 재능과 에너지를 ‘노래심부름’이라는 도구로 쓰임 받는 중이다. 심부름은 진정으로 해야 하고 대가가 없어야 한다. 병원 환우들과 장애인, 양로원과 복지관 어르신들을 위한 노래심부름을 할 때도 이곳만큼 절절하지는 않다. 이곳은 내 삶의 잘못들을 되돌아보고, 그들 새롭게 살려는 필살의 인내함을 보며 거짓 없이 살겠다고 다짐하는 새로운 삶의 충전소이다. 이곳에는 번쩍이는 기타와 화려한 노래 연주로 콘서트장에서 누릴 수 있는 환호와 박수갈채는 없다. 대신에 절실함이 있고 생생함이 있다. 뜨거운 눈물이 그들에게서 그리고 내게서 줄줄 흘러지는 것은, 앞으로도 더 뜨겁게 다가가라는 주님 소망의 신호이고 약속임을 그들 옷처럼 파란 하늘을 보며 되새긴다.



하가르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_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하가르의 뜻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집트 여인의 이름으로 학자들은 ‘도망’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름대로, 하가르는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고는 자신의 주인인 사라의 구박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창세 16,6). 돌아와서는 다시 쫓겨납니다(20,14). 어쩌면 그의 이름이 뜻하는 것은, 이집트에서 도망 나온 것을 의미할지 모릅니다. 혹은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사라의 덕으로 얻은 여종 중의 하나일지도 모릅니다(13,16).

이름만큼이나 하가르의 삶의 여정도 참 고단합니다. 어떠한 사정인지 모르지만, 정든 고향과 부모를 떠나 떠돌이 외국인 유목민 노부부의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종의 일만으로도 고단한 데 말도 안 통합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말을 조금이나 알아들을 때쯤, 여든 살이 넘은 주인 어르신의 침소로 들어가라고 떠밀립니다. 아이를 임신하여 낯선 땅, 낯선 사람들 속에서 ‘드디어 내 피붙이를 얻는구나!’ 하며 기뻐하고 안심하였을 수 있습니다. 몸이 불어 빠릿빠릿 움직이지 못했는데, 그러한 몸짓마저 아이를 가져보지 못하여 시샘 가득한 여주인에게는 자신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보였나 봅니다. 원통이 가득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그 탓을 하며, 하느님을 부르며 시비를 가려주셨으면 하고 부르짖습니다. 사라가 하가르를 구박하는데, 이 구박이라는 동사는 ‘폭력을 행사하다’, ‘강간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일 정도로, 한 존재를 지독하게 짓밟는 행위를 뜻한다고 합니다. 하가르는 사라에게 얼마나 짓밟혔으면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치안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은 낯선 곳으로 그냥 무작정 도망을 쳤을까요. 그렇게 도망치던 하가르에게 하느님은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나타나십니다.

하느님이 이집트 여종 하가르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성서에서는 하느님의 천사가 나타났다고 표현하였지만) 선민의식이 강한 이스라엘 민족이 보기에 대단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가르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민족인 이집트의 여인이고, 이스라엘의 종교에 편입되었다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특별히 하느님을 부르짖거나 기도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그런 하가르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성서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사라는 여종이 자신을 업신여긴다며 하느님을 들먹거립니다. 그렇게 자주 하느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정실인 사라는 사실 그때

까지만 해도 하느님과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성서에서 사라와 하느님과의 대화는 딱 한번, 하느님이 세 사람으로 나타나시던 마르레 참나무 곁, 아브라함 등 뒤 천막 어귀에서였습니다. 그것도 하느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엿듣다가 자신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비웃다가 하느님의 질책을 듣고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라고 부인하자 “아니다. 너는 웃었다”(18,15)라는 단답식 대화뿐입니다.

그런 하느님이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이민족, 게다가 여인, 그리고 종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신앙에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하가르의 목소리가 하느님과의 대화 말고는 나오지도 않는 아무런 비중도 없는 인물인데도 그런 하가르에게 하느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을 건네십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16,8) 그리고는 대뜸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던 그 복을 내리십니다. “너의 후손을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게 해주겠다.”(16,10) 그 태아의 이름까지 몸소 정해줍니다.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네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다.”(16,11) 이사악이 태어난 뒤, 하가르가 아브라함 집안에서 쫓겨난 뒤에도 나타나셔서 먼저 말을 건네시고, 비슷한 위로와 축복의 말을 건네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저기에 있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21,17)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고단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가르에게 나타난 하느님은 너무나 큰 희망이며 위로입니다. 억울하고 서러워 눈물 흘리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한 발 더 나가, 내 옆 동료의 하느님이기도 합니다. 어리숙하고, 신앙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한 내 이웃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와는 다른 피부, 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주민, 혹은 외국인들의 하느님이시기도 합니다. 최근 제주에 예멘인들 500명이 들어와, 난민에 관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난민만이 아니라, 한국에는 이미 많은 수의 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조선족, 중국과 동남아에서 건너온 이들,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우리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고, 잠재적 테러 용의자, 깡패집단, 우리 일자리를 뺏으러 온 사람 마냥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았던, 사라가 하가르를 대하듯 그들을 대했던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반성해봅니다.





마음의 기둥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김일호 미카엘 기쁨과희망은행 본부장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진정한 기쁨은 어떤 사물이나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만남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태어나며, 자신이 받아들여졌다고 느끼는 것, 이해받고 사랑받았다고 느끼는 것에서 옵니다. 그리고 다른 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사랑하는 것에서 태어납니다. 한순간의 일시적인 관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한 사람의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만남의 무상성(無償性), 즉 아무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만나는 것에서 태어납니다! 누군가 나에게 ‘너는 내게 중요한 사람이야.’라고 말해주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꼭 말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소중하단다. 너를 사랑하고, 너를 믿는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기쁨이 태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바라보신, 그 순간의 기쁨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느끼는 것이 우리 기쁨의 비결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느끼고, 그분에게 우리는 그저 숫자가 아니라 인격체임을 느끼며,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분이심을 느끼는 것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중요한 사람이야.’라고 교황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소자들 역시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창업자금 지원으로 기회를 얻은 대출자들의 재범률은 일반 출소자의 재범률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종교기관인 ‘기쁨과희망은행’으로 재범률이 낮아지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범률이 1% 감소하면 연간 1,000억 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는 곧 사회 안정과 직결됩니다. 출소자에 관한 법, 제도적 부분에서의 차별로 인해 사회적 기회의 박탈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의 인식 부족으로 출소 후의 인간관계가 차단되어 재범의 높으로 출소자를 밀어 넣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출소한 이후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거나 사건의 충격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2008년 6월 25일 설립되어 2018년에 10주년이 되었고 200여 명의 대출자에게 36억 원을 지원하여 15명의 완납자를 배출하였습니다.

2019년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출소자들이 더욱 체계적이고 사회에 적응하며 성공할 수 있도록 신부님들과 운영위원들의 힘을 합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서 기쁨은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이라고 풀이되어 있고 희망은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라는 것’이라 나와 있습니다. 출소자들에게 즐거운 마음과 앞날에 대한 희망을 주고 마음의 기둥이 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현대일 신부님께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신부님!

어떻게 지내시나요? 서울은 영하권 날씨가 시작되었고 눈도 내린다고 하더군요.

신부님이 계신 곳도 눈이 내렸나요?

저는 난방 수리를 한 방으로 옮겨 따뜻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 하느님의 은혜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죄인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번 서신에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새로 옮긴 방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들의 배려로 새벽 4시부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력이 다시 좋아져서 기도를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며칠은 체력이 떨어져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체력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기도를 드립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드려서 정말 기쁩니다. 이것이 정말 더 큰 기쁨이지요.

신부님!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해 주세요.

2018. 11. 25.

구OO 드림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하다 진주교도소로 이감된 형제님께서 현대일 신부님께 감사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계좌주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p>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p> <p>① 수집 및 이용목적: 자동이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p> <p>② 수집항목: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계좌정보/(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p> <p>③ 보유 및 이용기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종료 또는 해지 후 5년</p> <p>④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p> <p>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신청 절차에 의해 반드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자동이체 신청가능 수집을 원치 않으실 경우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p>			
개인정보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본인은 자동이체거래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거래금융기관명, 영업점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상기 거래금융 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위 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약관과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2019년 2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저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 일시: 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30 * 장소: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2월 축일을 맞으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오니 축일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11/11~12/10)

11월~12월에는 하진숙 안나, 김명순 자매님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김기영, 김영희 안드레아, 김은영, 김태효, 남희자, 박명진, 박수현, 박영만 토마스모어, 박호균, 배동환 베르나르도, 베네딕도, 석진철, 윤혜영, 이백철, 이석수, 이순희 율리야나, 이희 분도, 임철현, 전화자, (주)하하인터내셔널, 최웅재, 최희재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사 알림

- 1월 7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 가톨릭회관 3층
- 1월 7일(월)~8일(화) 전체 봉사자 피정 / 마리스타 교육관
- 1월 8일(화)~11일(금) 고봉중고등학교 겨울신앙학교 / 고봉중고등학교
- 1월 10일(목) 해밀 가족 모임 / 교정사목 센터
- 1월 28일(월)~30일(수) 한국 가톨릭 교정사목 전국협의회 제7차 정기총회 / 담양 대건 센터



후원 계좌번호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신청서

후원자 성명	세례명			영명축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소식지발송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원치않음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5,000원	<input type="checkbox"/> 10,000원	<input type="checkbox"/> 20,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금융기관명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5일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형식의 평생계좌는 [모계좌번호]를 적어주세요.				
예금주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영수증 원하시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기입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너희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마태 25,36)